『금강삼매경론』 속의 원효의 선禪사상

기신사상특강:고영섭 교수님
학번:2024121018
이름:문은미

목 차

Ⅰ.서론

Ⅱ. 원효 사상
1.『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
2.『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사상적 지향점
3.일미관행(一味觀行)의 선(禪)

Ⅲ. 결론

Ⅰ. 서론

한국불교 사상사에서 원효(元曉, 617~686)는 삼국통일기라는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방대한 불교 교학을 일심(一心)과 화쟁(和諍)의 논리로 재구성한 독보적인 사상가이다. 기존의 원효 연구는 주로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등을 중심으로 그의 교학적 완성도와 회통(會通)의 논리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원효의 사상 체계는 단순한 이론적 종합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해소하고 깨달음을 현증(現證)하기 위한 실천적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효 사상의 실천적 정수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저술이 바로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에 대한 주석서이지만, 단순한 경전 해석을 넘어 원효 자신의 사상적 귀결을 드러내는 저술로 평가된다. 특히 이 논서에서 원효는 체(體)로서의 본각(本覺)과 용(用)으로서의 시각(始覺)을 불이적(不二的) 상즉(相卽)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러한 체용 구조가 수행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삼매(三昧)와 관행(觀行)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마음의 본성을 어떻게 체득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으며, 7세기 전후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전개되던 수행 중심의 사유와도 일정한 평행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원효를 교학 중심의 사상가로 한정하여 이해하거나, 그의 사상이 지닌 수행론적 측면, 특히 선(禪)적 성격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나는 일미관행(一味觀行)과 무생관(無生觀)은 주객 분별을 초월하여 마음의 본원을 직관하려는 수행법으로, 단순한 교리 설명을 넘어서는 실천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후대 조사선의 전개와 비교 가능한 지향을 선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적 수행이 단순한 개인적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화쟁 사상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분별을 해체하고 일심의 무분별지에 도달하는 수행 경험은 곧 교학적 대립을 해소하는 인식론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교설 간의 갈등을 포섭하는 화쟁의 논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점에서 『금강삼매경론』은 원효 사상에서 선과 교, 그리고 화쟁이 어떻게 하나의 구조 속에서 통합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강삼매경론』을 분석하여, 원효가 제시한 선(禪)의 개념과 수행 체계를 도출하고, 그것이 일심 사상 및 화쟁론과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원효 사상

원효의 일대기를 적은 「고선사서당화상비(高仙寺誓幢和尙碑)」[1]는 일부가 파손된 채 지금은

1) 「고선사서당화상비」는 하단부와 상단부가 깨어져서 따로따로 발견되었다. 하단부는1915년5월9일에경상북도경주시 월성군(月城郡)내동면(內東面)암곡리(暗谷里) 고선사터에서 편으로 조각난채로 발견되었고, 상단부는1968년 9월초 경주시 동천사지(東泉寺址)근처에서 발견되었다. 하단부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상단부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몇 조각의 단편만 전해지고 있다. 원효의 생애는 비문 이외에 다른 몇 가지 자료를 통해 파악되고 있지만 현재 부분적으로 생애를 알 수 있는 주요 자료는『삼국유사(三國遺事)』권4「원효불기(元曉不羈)」,) 『송고승전(宋高僧傳)』 권4 「당신라국황룡사원효전(唐新羅國黃龍寺元曉傳)」,「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湘傳)」,『동사열전(東師列傳)』권1 「원효국사전(元曉國師傳)」11) 등이다. 또한『종경록(宗鏡錄)』1,『임간록(林間錄)』,『삼국유사』권4「의상전교(義湘傳敎)」와「사복불언(蛇福不言)」등이 있다.

원효는 진평왕 39년(大業13년, 丁丑, 617)에 태어났다. 속성은 설(薛)씨로, 조부는 잉피공(仍皮公) 또는 적대공(赤大公)이었다. 아버지는 담날내말(談捺乃末, 乃末은 관직 이름)로 원효라는 이름은 스스로 부른 것이다. '불교를 처음으로 빛나게 하였다'는 의미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방언으로 그를 '새벽[始旦]'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원효의 출가 시기는 명확하지 않고 15세 전후의 나이에 출가한 것으로 보인다.[2] 일정하게 정해진 스승을 모시지는 않고 여러 스승에게서 배웠다. 많은 저술에서 나타나는 해박한 내용으로 보아 당시 중국에 유행하고 있던 여러 불교 사상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배웠음을 알 수 있다. 원효는 요석궁 공주와의 인연을 계기로 스스로 소성거사(小姓居士)라고 칭하며, 이후 대중 교화 활동에도 상당한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효는 무애박을 두드리고 '일체무애인(一切無碍人)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23)라는 무애가를 부르며 무애무를 추면서 걸림없이 교화하였다. 이러한 원효의 교화 방식으로 민중들이 부처의 명호를 알고 '나무(南無)'를 칭하게 되었고 이처럼 저술 및 대중교화 활동에 전념하던 원효는 686년 3월 혈사(穴寺)에서 70세를 일기로 입적한다. 아들인 설총이 유해를 빻아서 소상을 만든 다음 원효가 주석하였던 분황사에 봉안하였다. 입적 후 100여 년이 지난 애장왕대(800~808)에 그의 손자 설중업(薛仲業)과 각간(角干) 김언승(金彦昇, 후대의 헌덕왕) 등이 중심이 되어「고선사서당화상비(高仙寺誓幢和尙碑)」를 세웠고, 1101년 8월에 고려의 숙종은 화쟁국사(和諍國師)24)라는 시호(諡號)를 추증하였다[3]

원효의 저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논리의 형태로 도교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많다. 특히 원효의 주석서 서문, 즉 대의에서 특히 널리 쓰이는 형태는『도덕경』첫째 장의 형식이 두드러진다. 물론 대의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노장의 용어를 가져와서 일견 도교적인 영향을 볼 수는 있으나 그 뜻까지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논리로 재해석한 동양의 전통적인 문장 형식[4]이라고 할 수 있다.

---

2) 원효스님의출가 시기를 전하는 기록은『송고승전』권「당신라국황룡사원효전」이 유일하다. 이에따르면 "관채(丱)의 나이에 슬기롭게 법에 들어갔다."(大50,p.730a7~8. 丱之年,惠然入法.)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관채'는 두갈래로 땋은 머리를 하나로 묶어 상투를 튼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대체로 원효스님의 출가시기를15세전후로이해한다.남동신의『원효의대중교화와사상체계』(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1995),p.62에서 이를언급하고있다.

3) 정선원효 p23-24

4) 한예로 청량징관(淸凉澄觀)의『화엄경소(華嚴經疏)』의 '서'에서법계의 상(相)을 "중묘를머금었으나남음이있다."(大35,p.503a3.含衆妙而有餘.)고 표현하고 있는데,징관 스스로『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중묘(衆妙)'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중묘라는 두 글자는『노자』의이다. 저『도덕경(도경)』에…'현하고 또 현함이여! 중묘의 문이로다.'라고하였다.…그러나 지금은 그 말은 빌렸으나 그 뜻을 취한 것은 아니다. 뜻은 일진법계(一眞法界)로 현묘의체(體)를 삼고 체에 즉(卽)한 상(相)으로써 중묘를 삼았다."(大36,p.2b2~11), 정선원효p32

원효가 태어나고 수학하며 교화를 펼친 시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전후기였다. 오랜 전란으로 민심이 피폐하고 갈등이 심화 되었던 시기에, 원효가 고민하며 신라 사회에 끼친 영향은 갈등의 화해와 고통의 소멸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그의 사상과 덕화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 빛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5] 원효는 소속된 교파가 없이 당시의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원전에 기초한 자료를 해석하려는 노력으로 당시 신라불교에 크게 영향을 미친 대승불교의 거의 모든 문헌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한다. 이러한 원효의 저술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사상의 특징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화쟁과 통불교다.[6]

원효의 통불교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상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바로 일심(一心)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심 역시 원효 저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내용이다. 원효가 관심을 보이는 유식·여래장·열반·화엄 등의 유심설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원효의 깨달음의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다.[7]

화쟁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일심에 의하여 화엄의 무장무애법계(無障無礙法界)뿐만 아니라, 정토의 구현이라든지 참회와 발보리심, 그리고 대승 보살계 수지 등 원효의 불교 세계는 같으면서 다르고 다양하면서도 동일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원효의 『화엄경소』, 『본업경소』, 『해심밀경소』, 『금강삼매경론』 등의 서문과 『열반종요』, 『법화종요』 등의 서문, 그리고 『대혜도경종요』의 대의 등에서 해당 경론의 세계를 펼치는 근본 도리만 보아도 모두 동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화엄법계를 “막힘없고 걸림 없는 법계의 법문은 법이 없으나 법 아님도 없고 문이 아님도 없다.”라고 하였다.[8]

1.『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은 다양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방법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 원효(617-686)는 『대승기신론』의 ‘일심’ 개념을 토대로 현상계(心生滅門)와 종교적 진리(心眞如門)를 포괄하는 통합적 교학 체계를 수립한다.

『금강삼매경』은 ‘금강삼매’를 성취하여 깨달음을 완성하는 길을 설하는 경전이다. ‘금강삼매’가 어떤 경지이며 어떻게 수행해야 성취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9] ‘금강삼매’는 불교 수행 체계에서 최고의 정신적 경지로 간주하며 금강석처럼 견고하고 불변하는 깨달음의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

5) 전호련(해주)(1998),「원효의화쟁과화엄사상」『한국불교학』제43집,한국불교학회,pp.155~156
6) 앞에서도 언급한 박종홍의 「원효의 철학사상』에서는 원효스님의 사상을 일련의 연결된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그 출발점을 ‘화쟁’으로 삼고 나서 개합과 종요, 부정과 긍정, 통불교라는 원효스님의 주요 개념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잇고 있다. (pp.59~88) 정선원효(2009), 재인용,p34
7) 해주(2009), 정선원효 p36
8) 「화엄경소서」(韓1, p.495a3~4. 原夫無障無碍法界法門者, 無法而無不法, 非門而無不門也.)
9) 박태원(2014), 「지적 이해와 원효의 선관(禪觀)」, 『불교학 연구』 39, 불교학연구회, pp.236-237.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은 유기적 상관성과 함께 철학적 완성이었다.
원효의 선사상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 모태가 되는 『금강삼매경』과 이에 대한 주석서인 『금강삼매경론』이 맺고 있는 각별한 관계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두 문헌은 단순히 원본 경전과 그 해설서라는 수직적 관계를 넘어, 7세기 한반도 불교계가 직면했던 시대적·사상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유기적이고 불가분의 공동 기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10)]

역사적·문헌학적 정황을 살펴보면, 『금강삼매경』은 인도나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7세기 신라에서 찬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1)] 당시 신라 불교계는 대중불교의 주역이었던 대안 화상이 흩어진 경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편집하고, 원효가 이를 넘겨받아 곧바로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한 것으로 전해진다.[12)] 이는 7세기 한반도의 지성들이 새롭게 대두하던 선종(禪宗)의 사상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당시 동아시아 대승교학의 핵심이었던 중관학과 유식학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금강삼매경』이 불설(佛說)의 권위를 빌려 선(禪)의 사상적 기치를 천명했다면, 원효는 주석 작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문제의식을 철학적으로 완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13)] 상호 보완적 체계를 구축한 두 문헌은 '삼매(三昧)'라는 종교적 실천과 '대승교학'이라는 철학적 통찰을 결합하여, 선의 철학적 완결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강삼매경론』에서 천명하고 있는 원효의 실천 수행관39) 역시 화쟁의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 경의 대의는 일심의 근원[一心之源]과 삼공의 바다[三空之海]를 밝힌 것이며 그것은 유·무, 진·속이 둘이 아니면서 하나를 고집하지도 않음을 보여 준다.[14)]

『금강삼매경』이 삼매를 전면에 내세우며 선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선의 철학'을 보여준다면, 『금강삼매경론』은 이러한 지적 지평을 선 수행의 범주로 포섭하여 구체적인 실존 지평을 여는 '철학의 선'으로 전변(轉變) 시키고 있다[15)]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깨뜨림이 없지만 깨뜨리지 않음이 없으며, 세움이 없지만 세우지 않음이 없으니, 가히 이치가 없는 지극한 이치요, 그러하지 않으면서 크게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경의 대의이다'.[16)]
특히 『금강삼매경』 정설분 6품의 구조에 대해 원효는 이를 대승교학의 핵심 통찰을 망라한 체계로 파악하고 있다.

원효는 경전의 내용을 종합하여 실천적 요체인 '일미관행(一味觀行)'을 도출하고, 이를 교학

---

10) 박태원,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읽기』 p31
11) 고영섭, 「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 p129
12) 박태원,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읽기』 p32
13) 위와 같음 p40
14) 『금강삼매경론』 상(韓1, p.604b8~9). 佐藤繁樹의 『원효의 화쟁논리』는 『금강삼매경론』에서 말하는 무이불수일(無二不守一) 사상에 입각하여 원효스님의 화쟁논리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15) 위와 같음p11
16) 爾乃無破而無不破, 無立而無不立, 可謂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矣. 是謂斯經之大意也.

적으로 전개하여 '십중법문(十重法門)'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경전이 의도한 반야 중관과 유가 유식의 일미적 통섭을 완벽하게 구현해 낸다.[17]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을 매개로 한 사상적 완결인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고리는 단연 '깨달음(覺)', 이라는 본각과 시각의 사상이다.
경전의 연기 설화에서도 등장하듯 『금강삼매경』은 "본각과 시각의 두 깨달음(二覺)을 종지로 삼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원효는 동시대 『대승기신론』의 최고 연구자로 기신론의 본각·시각 사상을 뼈대로 삼아 『금강삼매경』의 사상을 정교하게 해설하고 있다.

『금강삼매경』의 전반부(무상법품, 무생행품)가 비로소 깨달아 가는 '시각'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면, 후반부(본각리품 등)는 '본각'의 지평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이타행을 설하고 있다.
원효는 이를 주석하면서 시각이 점차 원만해지면 본각과 다르지 않게 되는 '일각(一覺)'과 '일미(一味)'의 경지를 논리적으로 확립하였다.[18]

주석서(疏)를 넘어선 논서(論)로서의 격상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 원본 경전에 종속된 단순한 주석이나 해설서에 머물지 않았다. 원효는 『금강삼매경』이 지향하는 '일심(一心)'의 근원과 '삼공(三空)'의 바다를 온전히 꿰뚫어 보았으며, 부처와 중생이 만날 수 있는 실천적 통로를 열어두었다. 후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번경삼장(飜經三藏)들이 원효의 저술을 단순한 해설서를 뜻하는 '소(疏)'가 아니라, 독자적이고 완결된 철학 체계를 갖춘 '론(論)'으로 명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19] 『금강삼매경』이 7세기 신라 불교계가 창조해 낸 보물이라면,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 그 보물들을 하나로 꿰어 한국 불교 선사상을 높은 봉우리로 쌓아 올린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20]

『금강삼매경』은 한국불교에 있어 특별한 경전이다. 『송고승전』에 따르면, 이 경전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7세기 중엽으로 신라 대중불교의 대안(大安) 화상이 편집하고, 최초의 주석서 저자가 원효이기 때문이다. 7세기 중반까지 동북아 불교권에서 거론되던 불교사상의 거의 모든 유형을 망라하여 고급 불교 언어를 전개한 이 경전은 학계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찬녕(贊寧, 918-999)의 『송고승전(宋高僧傳)』에 기록된 원효 전기 가운데서, 금강삼매경』의 출현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집필 연기(緣起)를 전하는 내용이다.

"왕의 부인이 머리에 악성 종창을 앓았는데, 의원의 치료가 효험이 없었다. 왕과 왕자, 그리고 신하들이 산천의 영험 있는 사당에 기도하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무당이 말하기를, <타국으로 사람을 보내어 약을 구해야만 이 병이 곧 나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왕이 사인(使人)을 당나라에 보내어 의술을 찾도록 했다. 파도 높은 바다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이 홀연히 나타나 파도로부터 배 위로 뛰어올라 사신을 맞아 바다로 들어갔다. 바라보니 궁전이 장엄하고 화려했다. 금해(鈐海)라는 용왕이 있

17) 고영섭(2020),「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p. 157~158
18) 고영섭(2020),「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p. 134~135

19) 위와 같음p179-180
20) 박태원,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읽기』 p12

어서 사인에게 말했다. <그대 나라의 부인은 청제(靑帝)의 셋째 딸이다. 우리 궁중에는 전부터 『금강삼매경』이 있는데, 이각(二覺)이 원통(圓通)하여 보살행을 보여준다. 지금 부인의 병을 의탁해 좋은 인연으로 삼아 이 경을 부촉하여, 그 나라에 내어 놓아 유포하고자 한다. 이에 30장 정도의 순서가 뒤섞인 흩어진 경을 가져다가 사인에게 주면서, <이 경이 바다를 건너는 중에 좋지 못한 일이 있을까 두렵다.>고 했다. 용왕은 사람을 시켜 사인의 장딴지를 찢고 그 속에 경을 넣어 봉하고 약을 바르도록 하니 전과 다름없이 되었다. 용왕이 말했다. <대안성자(大安聖者>로 하여금 경을 차례로 엮어서 꿰매게 하고, 원효법사에게 소(疏)를 지어 강석(講釋)하기를 청하면, 부인의 병은 틀림없이 나을 것이다. 가령 설산 아가타약의 효력이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용왕이 바다 표면으로 보내 주어 마침내 배를 타고 귀국했다. 그때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환희하였다. 이에 대안성자를 불러 경의 차례를 맞추게 하라고 했다. 대안[21]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모습도 복장도 특이하였고, 항상 거리에 있으면서 구리로 만든 발우를 두드리면서 '크게 평안 하라! 크게 평안 하라!(大安大安)'라며 노래를 했기에 대안(大安)이라고 불리었다. 왕이 대안에게 명령하니 대안이 말하기를, <다만 그 경을 가지고 오시오. 왕의 궁전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소이다.>라고 했다. 대안이 경을 받아 배열하여 8품(品)을 이루니, 모두 부처님 뜻에 맞아떨어졌다. 대안이 말했다. <속히 원효가 강의하게 하시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원효가 이 경을 받은 것은 바로 그의 고향인 상주(湘州)에서였다. 그는 사인에게 말했다. <이 경은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의 이각(二覺)으로써 핵심(宗)을 삼습니다. 나를 위해 소가 끄는 수레(角乘)를 준비하고, 책상을 두 뿔 사이에 두고 붓과 벼루도 준비하시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가 끄는 수레에서 소(疏)를 지어 5권을 만들었다. 왕이 날짜를 택하여 황룡사에서 강연하도록 했다. 그때 박덕한 무리가 새로 지은 소를 훔쳐갔다.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어 3일을 연기하고 다시 3권을 만들었는데 이를 약소(略疏)라고 한다. 경전을 강의하는 날이 되어 왕과 신하, 그리고 도 닦는 사람들과 속인 등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법당을 가득 에워싼 속에서 원효의 강론이 시작되었다. 그의 강론에는 위풍이 있었고, 논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었다. 그를 찬양하는 박수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원효는 다시 말했다. <지난 날 백 개의 서까래를 구할 때에는 내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 대들보를 놓을 때에는 오직 나만이 가능하구나.> 이때 모든 명성 있는 승려들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가슴 깊이 참회했다."[22]

『송고승전』의 원효 전기는 사실상 이 내용이 핵심이고 분량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송고승전』의 이 기록은, 『금강삼매경』의 등장에 신라인 대안(大安)과 원효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해설서인 『금강삼매경론』 저술을 통해 신라불교계에서 확고한 사상적 위상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또한, 원효가 자신의 사상을 시각(始覺)/본각(本覺)을 중심으로 총결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그의 깨달음의 사상은 『대승기신론』의 시각/본각 사상에서 기초를 마련한 후 『금강삼매경』을 매개로 삼아 『금강삼매경론』에서 완결되었다.[23]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깨달음을 근본으로 삼아 그 이전과 이후의 공의 내용을 체계화하

---

21) 대안(大安)법사는 7세기에 활동한 신라의 스님으로,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항상 시장에서 구리그릇을 두드리며 "대안, 대안" 하고 다녔기 때문에 대안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왕비가 병이 나서 바다 속 용궁에 들어가 『금강삼매경』을 구해 왔는데, 용궁에서 이 경은 대안성자가 뒤섞인 순서를 바로 맞추고 원효스님이 해석서를 풀어 강의하면 왕비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대안에게 경전을 맞추라고 명하자 대안은 궁궐에는 들어가지 않고 경전만 맞추겠다고 하여 8품으로 완성하였다. 대안스님은 원효스님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다고 하며 원효스님에게 빨리 가져가도록 하였고, 원효스님은 이를 받아 명작 『금강삼매경론』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송고승전』 권4 「원효전」). 이와 같은 전승은 대안스님이 불교 교단과는 거리를 두고 활동하던 대중 포교 활동가였으며, 새로운 교학에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22) 찬녕, 『송고승전』 권4, 신라국황룡사원효전(신수대장경 권50, 730쪽).

23) 박태원(2012),『원효의 선사상』,p8-9

여 불교의 공에 대한 교리적 해석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공의 해석에 있어 중관과 유식을 통합하여 깨달음을 바탕으로 절묘하게 두 교리를 관통하여 일심으로 융합시킨다. 용수는 중론에서 “일체 법은 여러 인연이 합하여 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공이라고 한다. 단지 가명(假名)이기 때문에 중도(中道)”라고 하였다.[24]

불교를 중국에서 접했을 때 공을 이해하기 위해 노장의 무(無)의 개념을 빌려 설명하였다.[격의불교(格義佛教)]. 이런 이유로 공의 개념은 허무주의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마라집에 의해 용수의 『중론』을 비롯한 삼론(三論)이 번역되면서, 승조(僧肇) 등에 의해 공의 개념이 바르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용수의 공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마라집과 길장은 중국식의 이해에 기반하여 수용하면서 중국식의 공사상이 형성되었다.

『금강삼매경』이 중국 초기선종(初期禪宗)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과, 달마의 이입사행설(二入四行說)이 『금강삼매경』의 이입설(二入說)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초기선종과 『금강삼매경』이 맺고 있는 일정한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원효가 『금강삼매경』에 대한 최초의 주석가이며, 그 주석서인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사상의 원숙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25]

위경(僞經)으로서의 『금강삼매경』 찬술의 사상사적 의미와 관련하여, 종래 학계에서는 주로 『금강삼매경』과 중국 초기선종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동산법문(東山法門)이 천태교단의 『마하지관摩訶止觀』에 대항하는 입장에서 동산법문의 사상적 원류를 불설佛說의 권위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위경을 찬술한 것이 『금강삼매경』이었다는 柳田聖山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선종에서는 『금강삼매경』을 그 출현 초기부터 주목하였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금강삼매경』 혹은 『경론』과 연관시켜 원효를 주목한 첫 번째 사례인 것이 『종경록』이다. 『종경록』에서 연수가 원효의 저술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이 이미 누누이 지적한다.

즉 원효에 대한 인식이 ‘대오(大悟)한 원효’라는 인식으로 형성되는 것은 『종경록』에서 시작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다. 또 원효의 저술 가운데 연수 이전까지는 『기신론소』를 중심으로 인용되었지만, 『종경록』에서 처음으로 원효의 이름 및 『금강삼매경론』 서명의 인용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다른 저술에 대한 인용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짧기는 하지만 『종경록』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최고(最古)에 해당하는 원효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26]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27]

『금강삼매경』의 경우, 그 형성과 보급의 진원지는, 현존하는 자료에 의하면, 신라불교계로 보고 있지만 『금강삼매경』의 신라 찬술설을 전제로 할 경우 그 추정 가능한 찬술자는 단연 대안과 원효 그룹이 주목된다. 따라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의 성립 동기 및 배경과 무관할 수가 없다. 두 문헌은 불교사상의 수준과 성격 및 종교적 태도 등에서 사상을 같이 한 대안화상과 원효 계열이 자신들의 문제의식과 관심사를 표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

---

24) 中論 (T30, 33b11-12), “眾因緣生法 我說即是無 亦為是假名 亦是中道義.”

25) 박태원(2012),『원효 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 p214

26) 대정장48, p.477上~中. 여기에는 원효가 의상과 함께 입당유학을 시도하던 중 悟道하였다는 것과 오도의 내용이 간략히 기사화 되어 있다. 이 전기의 내용은 『송고승전』의 「원효전」이 아니라 「의상전」으로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앞 장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찬녕이 원효를 선종에서 말하는 ‘산성(散聖)’으로 인식하였다는 관점을 수용한다면, 찬녕의 원효 이해가 연수의 종경록』을 계승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7) 석길암(2006),「중국 선종사에 보이는 원효에 대한 認識의 변화 『金剛三昧經』및 『金剛三昧經論』과 관련하여」, 선학,15,365-396,p375

의 산물로 보인다. 대안이 八品으로 경의 편집을 마친 후 원효를 주석자로 지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28]

2.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의 사상적 지향점

『금강삼매경』[29]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이 비록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두 문헌의 사상적 지향이 동일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금강삼매경』과 주석서인 『금강삼매경론』의 사상을 당연히 통일할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참고해야 비로소 『금강삼매경』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원효의 주석은 탁월하다. 그러나 두 문헌을 검토하면 할수록 사상적 지향이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나는 동일한 사상 지향은 크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관(中觀)과 유식사상唯識思想의 화쟁적 종합을 지향하는 것이고 , 둘째는 대승선大乘禪 사상의 천명이며, 셋째는 진속불이眞俗不二의 대중불교의 지향이다. 그리고 이것들의 근본 원리는 '본각本覺, 시각始覺' 중심으로 하는 각覺사상이다.[30]

원효 당시의 신라불교는 중관과 유식의 대조적 개성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원효의 저술 목록을 보면 중관과 유식의 중요 논서들에 대한 저술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는 원효 당시의 신라불교계의 관련 문헌이나 연구 수준 등에 있어 중관과 유식사상의 전모와 개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효가 종요宗要와 과간料簡(이 저술들은 현존하지 않음)을 저술하였다고 하는 『당진론掌珍論』은 청변淸辨이 호법護法의 견해 를 논파하고 있는 논서이기 때문에 원효가 청변과 호법을 에워싼 중관· 유식의 대립적 논의를 충분히 소화했을 것으로 보인다.[31]

신라 불교계는 이처럼 대승불교의 두 축인 중관과 유식의 대립적 갈등을 절충해야 하는 사상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더욱이 삼국의 쟁전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환경 요인은 당대의 지성들

---

28) 박태원(2011), 『원효사상연구』, p243

29) 『금강삼매경』이라는 경명은 僧祐(445-518)의 『出三藏記集』에 수록된 『新集安公凉土異經錄』에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그 이후 6, 7세기에 편찬된 여러 경록들에서는 모두 이 경을 闕經으로 기록했다. 그러다가 智昇의 『開元釋敎錄』(730)에서 『금강삼매경』 2권 혹 1권을 現存錄에 편입하면서 '北凉失譯拾遺編入'이라 밝혀두었는데, 이후에 편찬된 경록들에서는 이 경을 現存經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록 상의 기록에 따르면, 『금강삼매경』은 4세기 후반에 漢譯된 후 逸失되었다가 7세기 후반 신라에서 재발견되어 다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水野弘元은 『금강삼매경』에 玄奘(602-664)譯 이후에나 등장하는 용어들(『반야심경』<648년 譯>의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明呪 是無等等呪의 四呪/『유식삼십송』<649년譯>의 末那)이 나타난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7세기 후반 신라에서 등장한 『금강삼매경』은 『道安錄』에 기록된 경이 아니라 650년 이후에 등장한 僞經이라고 주장한다. 인도에서 撰述되고 중국에서 漢譯된 것(眞經說)이 아니라 중국에서 찬술된 僞經이라는 것이다.(水野弘元,「菩提達摩の二入四行說と金剛三昧經」(『駒澤大學硏究紀要』 13, pp. 56-57.)

30) 박태원(2011),『원효사상연구』,p243

31) 위와 같음, p251

로 하여금 통합과 화쟁의 사상적 해법을 더욱 치열하게 모색하게 하였을 것이다. 원효는 그 해법을 불교에서 모색하여 확보하였고, 그의 불교사상이 보여주는 회통과 화쟁의 태도는 통합과 화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부합되었다.

유식의 사상적 갈등의 해결은 당시 중국과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시아 불교계의 핵심적 사상 과제였다. 신라 불교계에서는 원효가 그 문제의식과 해결의지 및 노력을 대변하였고 견등 역시 원효의 영향 아래 이 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중관· 유식의 空·有 대립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효의 노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간과해 왔던 것이 있다. 바로 『금강삼매경』의 등장과 이에 대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저술이다.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을 유심히 보면 , 양자의 공통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중관,유식의 화쟁적 통합이다. 이 점은 『금강삼매경』의 성립이나 원효 사상 이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32]

3. 일미관행(一味觀行)의 선(禪)

원효의 일미관행(一味觀行)은 『금강삼매경론』에서 제시되는 수행의 핵심 원리로서, 관(觀)과 행(行)이 둘로 갈라진 별개의 단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의 실천적 체험으로 수렴한다는 점을 말한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의 종지를 설명하면서, 총체적으로는 일미관행이 그 요(要)이고, 개별적으로는 십중법문(十重法門)이 그 종(宗)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수행의 다양한 국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법문들이 결국 하나의 깨달음 구조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금강삼매경론』은 『대승기신론소』·『별기』를 중심으로 해서 관행법을 설명하는데, 두 문헌 간의 접근 방식에 차이점을 보여준다. 『대승기신론소』·『별기』가 지(智)[시각·본각]의 관점에서 주로 교학적 논리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금강삼매경론』은 지(智)의 관점을 포함하면서 경(境)과 행(行)의 관점을 통섭하여 일미관행으로 확장해 나간다.[33]

경(境)은 진속쌍민(眞俗雙泯)의 경지라 할 수 있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진과 속의 이원성을 동시에 초월한 경지를 무이중도로 정립한다. 이는 무이의 중도적 관점에서 현상계와 절대적 진리 사이의 구분을 넘어선 궁극적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속제에서 시작하여 진제로 나아가서 속제중도·진제중도로 변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이중도의 경지에 도달하는 체계적인 수행 관법을 제시하고 있다.[34]

일미관행에서 “일미”는 모든 분별을 넘어선 하나의 맛, 곧 진속(眞俗)의 대립을 초월한 궁극의 경지를 뜻하고, “관행”은 그 경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행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 개념은 지적 이해와 실천을 분리하지 않으며, 인식과 수행을

32) 위와 같음, p252
33) 김영미(2025),『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선관(禪觀)과 선무도(禪武道)』,불교철학,17호,p302
34) 위와 같음,p303

통합한 원효 특유의 불교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일심(一心)을 경전의 대의로 삼고, 일미관행을 종지로 제시한 점은, 일미관행이 곧 일심의 실현 방식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일미관행은 화쟁사상과도 긴밀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원효에게 차별적 가르침이나 다양한 수행법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의 진리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길이다. 이런 점에서 일미관행은 여러 법문을 통합하면서도 각 법문의 의의를 살리는 해석학적·수행론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일미관행은 분별의 세계를 그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넘어 그 분별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원효의 통합적 수행론이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관법을 초지(初地)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무상법품(無相法品)」에 나타나는 무상관(無相觀)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초지를 기준으로 방편관(方便觀)과 정관으로 분류된다. 둘째, 제거해야 할 상(相)의 유형에 따라 동행총상관(同行總想觀), 이행별상관(異行別相觀), 진관(眞觀), 무생관(無生觀)의 네 가지로 세분화한다. 또한 「입실제품(入實際品)」에서는 초지 이전의 이관(理觀)[존삼(尊三)·수일(守一)·입여래선(入如來禪)]에 대한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진성공품(眞性空品)」에서는 초지 이후의 관법인 여래의관(如來義觀)에 관해 서술한다.[35)]
인간의 욕구와 행동은 관점과 상호적 연관성이 있다. 고도의 사유 능력을 지닌 인간에게는 관점이 욕구와 행동을 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생존과 직결된 본능적인 욕구나 행동은 다른 문화적인 욕구와 행동들 또한 대상에 대한 관점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식은 표층과 심층으로 나뉜다. 표층 의식의 현상들은 의식 주체가 그 내용을 능동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그런데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지는 심층 의식 현상은, 비록 존재하기는 하지만 의식 수준에서 인지되지 않는다. 의식의 심층에 잠재되어 있다 적절한 조건이 형성되면 의식 표면으로 올라와 그 순간에 의식의 인지 범위에서 포착된다. 따라서 심층의식의 내용은 의식 주체가 의지에 의해 확인할 수가 없다.

해탈 수행법인 팔정도는 계율, 참선, 지혜의 삼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선 수행은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에서 일어나는 관성적 성향들에 지배되지 않는 마음의 수립과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심층의식적 요구와 표층의식적 요구는 일치하지 않는다. 표층의식의 요구는 심층의식에 의해 거부되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다.

관(觀) 수행은 참선 수행(定學)과 지혜 수행(慧學)을 가리키는 수행법이면서 양자가 결합 된 수행 법이다. 의식의 표층과 심층에 뿌리내린 오염의 성향들에 말려들지 않는 마음을 확보해 가는 참선법이 관수행이며 또한 존재의 참모습을 왜곡시키는 환각적 착각을 교정하는 관점이나 이해 수립의 수행 또한 관수행이다. 초기경전에서는 전자의 수행은 '알아차려 붙들지 않기, 알아차려 휘말려들지 않기, 알아차려 빠져나오기'이며 후자의 수행은 '변하는 것이며(無常)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無我) 이해하기'로 그 핵심이 설해지고 있다.[36)]

---

35) 김영미(2025),『분황 원효『금강삼매경론』의 선관(禪觀)과 선무도(禪武道)』,불교철학,17호,p304
36) 박태원(2012),『원효 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p237

원효는 관행(觀行)을『금강삼매경』수행의 핵심으로 포착하였으며, 특히 일미관행 (一味觀行)을 역설하고 있다. 원효의 일미관행은 관이 지니는 참선수행과 지혜수행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한다.

윈효는 탐욕/성냄/어리석음에 의해 일어난 개인과 세상의 오염과 비극은 근원적으로 '하나가 된 마음자리'를 놓쳐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37]

일체심법상을 관찰할 때, 생멸심은 본처(本處)로부터 발생하지만, 본처가 이미 공하여 발생함이 없으므로 그 생멸 현상 역시 공하다는 본질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생겨나지 않음을 관찰할 때 '관찰하는 마음'[能觀心]도 또한 생기지 않으니, 이때 곧 '본래공적(本來空寂)'에 들어간다. 들어간 공적이 곧 일심(一心)이고, 일체가 의지하는 곳이기에 지(地)라고 부르니, 그러므로 '곧 공적(空寂)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공적한 마음자리[空寂心地]'는, 비록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유전(流轉)하면서 항상 유상(有相)을 취하지만, 이 문(門)에 의지하여 추구하고 관찰하면 '본래 공(空)한 마음[本空心]'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곧 심공(心空)을 얻는다.'라고 한 것이다. '마음이 공하다'[心空]는 것과 '공한 마음'[空心]이라는 것은 말에는 좌우가 있으나 단지 일심본각(一心本覺)이라는 의미이다.[38]

'일체 법상도 이와 같다'란 공적에 대하여 거듭 결론지은 것이니, 이 심·아의 두 가지 상(相)을 여읜 것만 아니라 그 나머지 유위(有爲)·무위(無爲), 나아가 유상(有上)·무상(無上) 등의 상(相)에 이르기까지 무상심(無相心)에서는 여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39]

원효에 따르면, 관하는 심성이 무생(無生)의 경지에 도달하면 본래의 공적한 상태를 성취하게 된다. 이러한 공적한 심성이 일심이며 일심은 심공(心空)이고 동시에 공심(空心)이다. 이는 심과 아의 이원적 구분이 소멸한 상태로 모든 붓다의 지혜 경지인 공적한 심성의 본질을 통해 관을 수행하면 본공심(本空心)을 획득하게 되며 일심본각의(一心本覺義)[生滅門]인 심공에 도달한다.[40] 더 나아가 심과 아의 상(相)이 부재한 무상심(無相心)을 통해 일심체[眞如門]인 진제를 구현하게 된다

원효의『금강삼매경론』에서 관수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무상법품」에서 무상관(無相觀)을 설명하는데, 결국 무이중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첫 관문인 방편관(方便觀)과, 일각(一覺)에 도달하는 정관(正觀)으로 나눈다. 교화행을 설할 때에는 방편관을 설하고, 일각(一覺)을 드러내어 시각이 본각임을 설명할 때에는 정관(正觀)을 설한다. 무상관(無相觀)을 더 세밀하게 동행총상관(同行總相觀) · 이행별상관(異行別相觀) · 진관(眞觀) · 무생관(無生觀)· 불생관(不生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심(一心) 이문(二門)이 형성되는 근거를 보이는 중요한 관(觀)인 동행총상관(同行總相觀)을 통해 능관(能觀)의 생멸심과 소관(所觀)의 모든 심법상(心法相)을 다 여의어 일심에 이르게 된다.

원효는 마음의 본질적 공적성(空寂性)에 대하여 "마음은 본래 공적하여 실체로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마음으로 형성된 색신이 존재할 수 없다. 몸과 마음의 실체성이 부재하므로 유아(有我) 역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논증한다. 이러한 논리는 유아(有我)에 집착하는 자로 하여

37) 위와 같음, p238
38)『金剛三昧經論』(T34, p.966a27-b4)
39)『金剛三昧經論』(T34, p.966b6-9)
40)『金剛三昧經論』(T34, p.966a)

금 유견(有見)을 소멸시켜 외도병을 초월하도록 하는 방법론적 기반이다. 반면, 무아(無我)에 집착하는 자는 무견(無見)을 제거함으로써 이승병을 초월하도록 한다.

원효는 초지에 도달하지 못한 범부들을 위해 이행별상관(異行別相觀)을 설명하여, 실제를 증득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행(異行)은 유아(有我) · 무아(無我) · 심생(心生) · 심멸(心滅) 등에 대해 관하는 방편을 세밀하게 설하여, 이집(二執)을 버리고 실제를 들 수 있게 한다. 무생관(無生觀)은 공적(空寂)에 이른 다음, 공적에도 머물지 않는 경지를 도달하는 관(觀)이다. 불생관(不生觀)은 마음과 법을 일으키지 않아서 오음(五陰)과 육입(六入)이 공적함을 얻게 되는 관(觀)이다. 「무생행품」에서 무생선(無生禪)을 설하고, 「입실제품」에서는 존삼(存三) · 수일(守一) · 입여래선(入如來禪, 理觀)을 설명한다. 이관(理觀)은 실제에 들어가는 방편으로서 존삼(存三)·수일(守一)·입여래선(入如來禪)의 차제로 나타난다. 「진성공품」에서는 출세선(出世禪; 眞禪)인 여래의관(如來義觀; 如來觀)을 설명한다. 여래의관은 여래의 뜻인 적멸을 관이다. 여래의관은 적멸한 경지에만 머물지 않고 밝은 지혜 스스로의 용(用)을 설한 관(觀)이다. 「여래장품」에서는 상법(常法)의 인(因)으로서 유무의 이집(二邊)을 여읜 경지를 이루는 관인 진관(眞觀; 眞證觀; 眞照觀)과 방편관(方便觀)인 유식심사(唯識尋思)와 여실지(如實智)를 설명한다.[41)]

일미관행 수행은 한 맛(一味), 알기(觀), 체득하기(行)의 세 가지 내용이 융합되어 있다.

『금강삼매경』은 '금강삼매'를 성취하여 깨달음을 완성시키는 길을 설하는 경전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지를 어떻게 수행해야 성취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 핵심이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이 문제에 집중한다. 불교의 교학사상사에서는 삼매성취의 수행법을 '선'수행으로 범주화 시키며 그 내용은 '고도의 마음집중 수행'으로 정리한다. 선수행에서 견해나 관점을 바꾸어 가는 지적知的 개안은 무익하거나 장애가 되는 지식 훈련으로 간주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선종 후기의 간화선 전통에서 모든 유형의 지적 이해를 '분별 알음알이 지해智解'로 보고 반언어문자, 반지식주의까지 나타난다.

'금강삼매'는 높은 선정의 경지로 반언어적, 반지식주의에 상응하는 선학 전통에서 보면 '금강삼매'를 성취하는 '선' 수행과 '언어를 매개로 한 지적 개안'은 명백히 충돌한다. 그러나 『금강삼매경」은 대승교학의 핵심 통찰을 담은 언어들을 망라하여, 그 언어들을 매개로 한 지적 개안을 '금강삼매' 성취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원효는 그 점을 관觀이라는 말에 담아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 '알기觀와 체득하기行를 두 축으로 삼아 삼매를 성취하는 수행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금강삼매경』의 '선학'이라고 풀이하는 원효의 '선관'은 주목될 수밖에 없다.

지적/언어적/철학적 개안을 삼매 성취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는 원효의 일미관행은, 선학의 '선' 수행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태도와 안목을 담고 있다. 원효의 선관은 반이론적 반언어적 경향의 통념을 지배한 선종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평가가 있다. 하나는 원효의 선관이 이론적 경향으로 치우쳐 선학에 무리하게 교학을 접목시키려 한다는 평가이다. 선종의 반지식/반언어적 통념의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평가이다. 다른 하나는 반이론/반언어적인 통념은 선학에 대한 오해이거나 편견이라는 것을 일깨워줌으로써 선으로

41) 김영미(2021),『원효 수행 관법에 대한 연구- 금강삼매경론의 무상관(無相觀)과 삼공(三空)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100집, 69-100쪽 p73

붓다 전통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여는 균형 잡힌 선관이라는 평가이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선(禪)의 개념과 수행 체계를 분석하고, 그것이 그의 핵심 사상인 일심(一心) 및 화쟁론(和諍論)과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원효를 주로 교학 중심의 사상가로 국한하여 이해했던 경향을 넘어서 『금강삼매경론』이 단순한 경전 주석서가 아닌 선과 교, 그리고 실천과 이론이 통합된 독자적 '론(論)'의 격조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은 7세기 신라 불교계가 직면했던 사상적 과제, 즉 반야 중관(공)과 유가 유식(유)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한 유기적 공동 프로젝트였다. 원효는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의 이각(二覺)을 종지로 삼아 시각의 수행 과정이 점차 원만해져 본각과 상즉하는 '일각(一覺)'과 '일미(一味)'의 경지를 철학적으로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공(空)과 유(有)의 교리적 대립을 일심으로 융합함으로써 선(禪)의 완결된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런 원효의 수행론의 핵심 요체는 '일미관행'으로 집약된다. 여기서 '일미'는 모든 분별과 진속(眞俗)의 대립을 초월한 궁극의 경지를 뜻하며, '관행'은 이를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행으로 체득하는 인식과 실천의 통합 체계이다. 원효는 범부와 성인의 수행 단계를 초지(初地)를 기준으로 방편관과 정관으로 나누고 동행총상관, 이행별상관, 무생관, 불생관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주객 분별의 생멸심을 타파하고 본래 공적한 마음자리인 '일심본각'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관법을 체계화하였다.

후대 조사선이나 간화선 전통이 모든 지적 이해를 분별 알음알이(智解)로 규정하고 반언어·반지식주의적 성향을 띤 것과 달리 원효의 선관은 대승교학의 철학적 통찰을 담은 언어를 매개로 한 '지적 개안'을 삼매 성취의 필수적인 한 축으로 설정한다. 즉, 철학적 이해(觀)와 실천적 체득(行)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높은 선정의 경지에 이르게 함으로써 반이론적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붓다 전통 본연의 자리로 복귀하는 균형 잡힌 선학의 안목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선적 수행은 개인의 초월적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궁극적으로 실천적 화쟁 사상으로 귀결된다. 분별을 해체하고 일심의 무분별지에 도달하는 수행 경험은, 교학적 대립과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인식론적 기반이 된다.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 7세기 삼국통일기라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 '일미관행'이라는 선적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본원을 직관하고 그 깨달음의 힘으로 모든 사상적·사회적 갈등을 포섭하는 '선(禪)과 교(敎), 그리고 화쟁(和諍)'의 완벽한 통합 구조를 보여준 한국불교 선사상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金剛三昧經論』(T34, p.966a-b)

『中論』(T30, 33b11-12)

『화엄경소서』(韓1, p.495a3~4.)

<단행본>

박태원(2011),『원효사상연구』,울산대학교출판부

박태원(2012),『원효 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한길사

해 주(2009),『정선원효』,대한불교조계종

<논문>

김영미(2021),「원효 수행 관법에 대한 연구- 금강삼매경론의 무상관(無相觀)과 삼공(三空)을 중심으로」,『한국불교학』 제100집, 69-100쪽

김영미(2025),「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선관(禪觀)과 선무도(禪武道)」,『불교철학』,17호,p304

고영섭(2020),「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반야 중관(空性)의 이제설과 유가 유식(假有)삼성설의 一味적 通攝: 『기신론소』 '一心'과 『삼매경론』 '本覺'의 유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불교철학』, 7, p119-185

박태원(2012),「원효의 선(禪)사상,『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철학논총,68집,p5-41

전호련(해주)(1998),「원효의화쟁과화엄사상」『한국불교학』제43집,한국불교학회,p.155~156

석길암(2006),「중국 선종사에 보이는 원효에 대한 認識의 변화 『金剛三昧經』및 『金剛三昧經論』과 관련하여」, 선학,